

# 하루 38km를 걸어서 출퇴근한 사람이 받은 선물

3개월 동안 매일 38km를 걸어서 출퇴근 하는 동료를 위해 자동차를 선물한 직장 동료들의 미담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신문'이 ABC 뉴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달린 퀸은 올해 60세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스파튼버그 카운티에 위치한 페덱스 배송 회사에서 박스 관리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 전 그만 차가 고장나 집에서 일터까지 19km를 걸어 새벽 4시까지 출근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19km를 걸어서 집으로 가야만 했다.

어느 날 도로를 걷고 있는 퀸을 본 직장동료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만나면 태워다 주곤 했다. 퀸의 동료인 조쉬 루이스와 루이스의 상사도 이렇게 퀸을 태워 주다가 생각한 것이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에 퀸의 사연을 올려 새차를 선물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루이스는 고펀드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당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튼버그 카운티 쪽에 산다면 도로를 걷고 있는 달린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페덱스에서 7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차가 고장나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하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19km를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차를 태워주면 기쁨같이라도 내고 싶다고 돈을 주지만 우리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곤 합니다. 말이 19km이지 왕복 38km를 일주일에 6일씩 걸어서 출퇴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그녀를 존경합니다. 그녀는 지금 새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녀는 우리가 모금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달 22일 시작한 모금운동은 직장동료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목표액인 1만 달러에 조금은 못 미치지만 적당한 차를 사기에는 충분한 8300달러가 모였다. 루이스는 "당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말과 함께 2014년형 은색 SUV 차량을 선물했다.

차를 선물 받은 달린은 너무 놀라며 "당신들이 나를 울린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였으며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

그녀는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며 감사의 카드를 전달했고, 동료들은 퀸의 카드를 페이스북에 공개해 모금을 도와준 모든 사람과 감동을 나누고 있다.

# 19년 만에 외상 빵 값 같은 여성

아르헨티나의 한 여성이 어려운 시절 외상으로 빵을 주던 빵집을 찾아가 19년 전 빛을 갚은 사연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2일 '나우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투쿠만주의 알데레테스에서 '라페틀라'라는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알리시아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진 사연은 2001년, 알리시아가 다른 곳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시작됐다.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여성이 찾아와 한참을 망설이더니 외상을 줄 수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상을 원하는 사연을 물어 보니 이 여성은 막 실직한 실업자였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여자가 외상을 원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여자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어린 고아 4명을 돌보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들에게 아침에 빵과 마테(남미의 전통차)라도 먹게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장부를 만들어 빵을 외상으로 주면 꼭 갚겠다."고 했다.

알리시아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외상을 주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여자는 알리시아의 베이커리에서 빵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그때마다 장부에 외상을 적었지만 장부를 관

리한 건 베이커리 주인 알리시아가 아니라 빵을 가져가는 여자였다. 알리시아는 "당시 빵 값은 1kg에 2페소(약 1.2달러) 정도로 큰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알리시아가 지금의 장소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여자와의 외상거래는 끊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리시아는 자신이 외상을 준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런 그가 깜짝 놀란 건 최근 한 중년여자가 찾아와 19년 전 장부를 내놓으면서다. 여자는 "오랜 외상 빛을 갚으러 왔다."면서 알리시아에게 장부를 펼쳐 보였다. 젊었던 여자는 이미 백발 되어 있었지만 알리시아는 바로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여자는 당시 외상으로 가져간 빵을 합산해 지금의 가격으로 빛을 갚겠다고 했다. 알리시아가 손사래를 쳤지만 여자는 꼭 빛을 갚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두 사람이 마치 일기장을 보듯 추억을 회상하는 기분으로 장부 기록을 살펴보니 여자가 갚아야 할 돈은 1만450페소(약 150달러)였다.

여자는 "그때 외상으로 빵을 얻지 못했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19년 동안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 이제 빛을 갚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 '생얼' 노출했다가 그만

능수능란(?) 변장술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전과만 16범에 달하는 남성이 '생얼'로 범행에 나섰다가 꼬리가 잡혔다.

5일 ABC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콜럼버스시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다. 총기로 직원들을 협박한 범인은 단 몇 분 만에 현금을 챙겨 은행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용의자의 얼굴은 고스란히 은행 CCTV에 노출됐고, 불과 몇 시간 후 범행 현장과 30분 거리의 엘라배마주 피닉스시티 자동차 판매장에서 체포됐다. 매장 주인은 그가 바로 갚을 치를 수 있다며 가방에 든 현금 다발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불잡힌 은행강도는 전과 16범의 남성 돈트렐 스콧(26)으로, 특이한 점은 체포 때마다 대부분 변장 상태였다는 점이다.

경찰이 공개한 머그샷을 보면, 그는 거의 매번 여장을 하고 있었다. 2015년 절도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금색 가발을 쓰고 분홍색 립스틱을 칠한 사진은 특히 눈에 띈다. 다른 범행에서도 갈색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하는가 하면, 컬러렌즈를 착용하는 등 변장에 공을 들였다.

화려한 분장에도 완전 범죄에 실패해서일까? 스콧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썼다.

어느 때와는 달리 아무런 분장도 하지 않은 '생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변장을 하지 않은 그의 얼굴은 식별이 더욱 쉬웠고, 단 몇 시간 만에 검거돼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찰은 스콧을 무장강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그가 은행에서 훔친 현금의 액수와 행방은 공개하지 않았다.

#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